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제 1독서] 예레 38,4-6.8-10
[화답송] 시편 40(39),2ㄱ-2.ㄷ-3.4.18(◎ 14-)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제 2독서] 히브 12,1-4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음] 루카 12,49-53

성가	8시 미사	입당 20	봉헌 211 513	성체 165 180	파견 4
	11시 미사	입당 20	봉헌 211 513	성체 165 180	파견 4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20주일(8월 18일)		연중 제 21주일(8월 25일)		연중 제 22주일(9월 1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오로(명국)	조례지나(선덕)	임루카(승원)	이엘리사벳(자영)	정스텔라(애리)	허세실리아(홍숙)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정요한(석준)	최분도(환준)	심미카엘(태규)	김안드레아(찬곤)	이레이몬드(창용)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손리디아(정욱)	허세실리아(홍숙)	심헬레나(승화)	김글라라(순희)	이베로니카(경란)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세상살이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두가 일치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현실은 오히려 분열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루카12,51)고 말씀하십니다. 평상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소 모순적인 것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는 그런 거짓 평화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은 오히려 현실적인 상황, 즉 죄와 악과 거짓 평화와 거슬러 투쟁하고 싸워야 할 우리들의 상황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평화라고 잘못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결코 폭력을 폭력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그러운 자비와 풍성한 은총으로 대응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 참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평화를 이루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꾸준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갑시다. 아멘.

제1독서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통스런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빌론의 침공을 받고 있었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의 군대가 출동하자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대신들은 끝까지 바빌론에 항쟁할 것을 주장합니다. 허나 예레미야 예언자만은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와 담판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자고 주장하다가 반역자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로 몰려서 결국 깊은 저수 동굴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과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바빌론의 재침공으로 크게 패하고 왕자들은 모두 살해되고, 왕도 눈알이 뽑힌 채 바빌론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대신들의 거짓과 맞서다가 큰 고통을 받지만 결국은 진리가 거짓을 이긴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자들은 교묘한 논리로 거짓 평화를 획책하지만 결국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힘들지만 그 길을 갑니다.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뜨거운 여름에 듣는 평화이야기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루카 12,49) 월평균 최고기온이 29.5℃인 8월에 듣는 복음 말씀치고는 너무 뜨겁지 않나요?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루카 12,50)라고도 하시니 시원한 물세례를 상상하며 불이 주는 뜨거운 느낌을 떨칠 수 있을까요?

월평균 강수량이 348mm나 되어 하늘에서 쏟아지는 시원한 빗물로 불별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처럼 가벼운 말놀이를 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루카 12,51) 주님의 도전적인 질문이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주님은 원래 “평화의 주님” (2테살 3,16)이 아니신가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학대하거나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러던 분이 아니신가요?(루카 6,27-28 참조) 게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 몰아 부칩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루카 12,51)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맞서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당신이 그토록 타오르기를 바라는 ‘불’, 그리고 당신을 그토록 짓누르는 ‘세례’와 연관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는 형식적인 물의 세례가 아니라, 당신의 수난과 죽음으로 완성되는 참된 평화의 세례입니다.

이 불은 온갖 죄의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떨쳐버려야 할 것을 움켜쥐고 있는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심판의 불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거짓과 위선과 죄악을 태워버리고 순수한 신앙을 가려낼 수 있는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 (로마6,3)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애매한 태도로 양다리를 걸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신앙인들에게 분명한 입장과 확고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시메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며 “반대를 받는 표징” (루카 2,34)이 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자신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고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에 등장하는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간교한 대신들의 입장과 완전히 대치되고, 게다가 매국적으로 들릴 수도 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고 치드키야 임금 (기원 전 597-586)에게 주님의 말씀을 조금의 가감도 없이 고향으로써 죽을 위험을 자초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요한 14,27)는 말씀이,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줍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은
'부서지고 바수어진 빵'
누구에게나 먹히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글_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주님,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베풀어주소서.(2)

제 방 탁자 위에는 1987년 여름 영세 받을 때 선물로 받은 키 60센티미터 정도의 ‘파티마’ 성모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막무가내식 때 기도를 올릴 때마다 성모상을 두 팔로 껴안고 합장하여 모은 성모님의 손에 머리를 들이던 공격적인 자세로 묵주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자세였지만 성모님은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기도 했을 터이니, 제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운다고 해서 성모님이 저를 매정하게 밀치시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무슨 자국을 보았습니다. 바탕이 짙은 초콜릿 빛깔인 탁자 위, 내가 기도하는 바로 앞자리 위만 하얀 얼룩무늬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제가 흘린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눈물에 강한 소금기가 있다는 상식은 알고 있었지만 옷칠한 탁자를 탈색시킬 만큼 방울진 눈물 자국이 작은 포도송이처럼 맺혀 있는 모습을 보자, 저는 제 슬픔에 겨워 닳치는 대로 때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작가가 아니라 환자라는 것이 제일 슬펐습니다. 저는 작가로 죽고 싶지, 환자로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성모님께 생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때는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제가 비록 주님을 모시기엔 합당치 않사오나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 부어라.’ (요한 2,7: 공동번역 성서)라고 이르셨듯이 제 육체의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포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양양 엉엉.”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0년 10월 27일, 마침내 저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항암치료로 빠진 손톱에는 약방에서 고무 굴무를 사다 끼우고, 빠진 발톱에는 테이프를 칭칭 감고 구역질이 날 때마다 얼음 조각을 씹으면서 미친 듯이 하루에 20에서 30매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원고를 썼습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작가생활 동안 누구보다 왕성하게 글을 많이 썼던 저였지만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단숨에 활기 넘쳐 창작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쓰는 느낌이었으며 제 손은 자동재봉틀처럼 저절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2월 26일, 정확히 두 달 만에 1,200매의 전작 장편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설의 제목은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입니다. 작품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성모님은 아드님께 제 기도를 전해주셨고,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 저를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것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가 쓴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처음엔 좋은 작품을 쓰다가 나중에는(나이가 들수록) 덜 좋은 것이 나오는 법인데 이 좋은 작품(포도주)이 병중에 나오니 웬일이오.” (요한 2,10 참조: 공동번역 성서)

저는 이미 ‘말씀의 이삭’ 란에도 두 차례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쓰는 글이 먼젓번 글보다 더 여러분을 거나하게 취하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제 때의 기도에 ‘항복!’ 하시고 질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가을날」에서 노래하였습니다. “주님 때가 왔습니다 / (중략) / 마지막 잎새들이 탐스럽게 무르익도록 명해주시고 / 그들에게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베풀어주소서 / 열매들이 무르익도록 재촉해주시고 / 무거운 포도송이에 마지막 단맛이 스며들게 해주소서...”

자비로운 주님은 제게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베풀어주셨습니다. “무거운 포도송이에 마지막 단맛이 스며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눈물의 포도송이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하나이다.

우리 모두 서정주의 시 「행진곡」에서 “결국은 조금씩 취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 이오니 주님, 초대받고 온 저마다의 손님들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충분히 대접하고 흥겨운 잔치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고통 받는 사람들,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인생의 잔치날에서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어 조금씩 취해서 “뺨알간 불 사르고 재를 남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허락주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첫사랑, 포도주의 첫 기적을 지금 여기서 베풀어주소서. 아멘.

최인호 베드로 | 작가

머무름

국법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 중 첫째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 불가침권입니다.
공권력의 행위가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범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거스르는 것이며,
따라서 구속력을 상실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기강

가톨릭전례 **믿음, 희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향주덕은 어떤 것인가요?**

비행기에 채우는 연료는 나로호 같은 로켓의 연료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두 연료가 비행체를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힘과 작용은 다릅니다. 중력을 이겨내고 대기권을 뚫어야 할 연료는 훨씬 강력하고 특별해야만 합니다.

인간관계에 평화와 기쁨이 흐르기 위해서 윤리적인 덕이 필요하듯이, 인간과 하느님과 관계에는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세 가지 향주덕이 필요합니다. 이 향주덕은 윤리적인 덕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신 덕(德)입니다. 이 세 가지 덕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813항 참조)

우리는 내일이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내일은 미래에 속하고 모든 미래는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과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것이 장차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은 언제나 피어오릅니다. 희망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실망과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희망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 주신 행복을 바라는 덕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818항)

행복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활동에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희망에서 생겨난 힘과 용기로 우리는 이기주의에서 차츰 벗어나 ‘나’ 보다는 ‘우리’ 를 생각하게 됩니다.

공동체로 일치되어가는 삶은 우리가 세속적인 급류에 휩쓸리지 않게 보호하고 사랑의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희망은 세상의 격한 풍랑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영혼의 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희망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일치를 위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는 향주덕입니다. 사랑은 덕의 바탕이므로, 모든 덕들은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룹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완성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요한 15,10)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요로운 영적 자유를 줍니다.

하느님께서 부여 주신 세 가지 향주덕은 우리의 능력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도록 하고 그분의 활동을 보증해 주는 천상의 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 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간직하고 불태워야 할 신앙의 연료이며, 이 세상 선과 악의 싸움터에서 승리를 위해 갖춰야 할 무장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씌시라.” (1테살 5,8)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1812-1829항

사목국 연구실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91	202	33	326
헌 금	\$669	\$1,114	\$64.25	\$1,847.25

< 교무금 > \$3,000

조상희(8) 양주석(1-6) 강수영(5) 송분학(8)
이경섭(6-7) 이영기(7-8) 송인근(5-8) 김정복(8)
송선주(6-8) 이욱경(7-12) 이규현(8) 이선희(8)
이성재(7-8) 신현규(5-8) 심재구(8) 김세록(6-8)
변귀태(8) 김정학(1-12)

< 성소후원금 > \$80

송분학(8) 김정복(8) 이욱경(7-12)

< Bishop's Appeal > \$430

이경섭(1-12) 박호영(1-12) 이선희(7-12)
변귀태(8-12)

< 감사헌금 > 원혜경 \$100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650

* 지난 주 약정해 주신 분

평협 여성부, 김범식

* 지난 주 봉헌해 주신 분

정창희, 평협 여성부, 김범식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015.28(185 세대 약정)

* 봉헌액 \$291,545.28

날짜	지 향	봉 헌 자
8월 18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유베드로(승룡)	임안젤라
	연 이은미	박베드로(진영)
	생 박헬레나영명축일	박세레나
	생 유케빈	유데레사
	생 이비오(기하)	전례성가대
	생 김그라시아(정옥)	전례성가대
	생 김그라시아(정옥)	조마리아
	생 김그라시아(규남)	전례성가대
	생 정안젤라(기숙)	전례성가대
	생 배젼마	전례성가대
	생 배젼마 생신	이야고보/카타리나
	생 9차꾸르실료참가자	조마리아
8월 20일 화	연 최베드로(취종)	가족
	생 유베르나르도(보형)	김데레사
8월 21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생 안나회원들 건강	안나회
8월 22일 목	연 김사비나	채데레사
8월 23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8월 24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 오늘 간식은 김범식프란치스코/마리안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제 사 양 -

◆ 알는 이들을 위한 기도 : 오늘 미사 중

◆ 오클랜드 교구 가톨릭 묘지 축성식

일시 : 8월 25일(주일) 오후 1시

장소 : 1051 Harder Rd. Hayward, CA

\* 사목회의는 축성식 후에 있습니다.

◆ 약정하신 2013년 Bishops Appeal 을 8월말까지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평협회의 : 8월 18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뜨개질사랑회 : 8월 18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사목회의 : 8월 25일(다음주) 묘지 축성식 후

◆ 울뜨레야 모임

8월 22일(목) 저녁 미사 후

◆ 빈첸시오 129차 홀리스 저녁봉사

일시 : 매주 넷째주 목요일(8월 22일) 오후 4시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주일학교 학부모 피정

일시 : 9월 8일 오후 1시

지도 : 본당 신부님

접수 : 친교실

**8월 구역모임 필리피서 3-4장**

|       |             |                             |
|-------|-------------|-----------------------------|
| 1 구역  | 8월25일(일)5시반 | 최재준 토마스 덕                   |
| 2 구역  | 8월25일(일) 6시 | 지영남 요한 덕                    |
| 5 구역  | 8월28일(일)10시 | Marina Park                 |
| 7-2구역 | 8월24일(토) 4시 | 친교실                         |
| 8-1구역 | 9월 1일(일) 1시 | 교육관 107호실                   |
| 9 구역  | 8월24일(토) 6시 | 허순구 라우렌시오 덕                 |
| 10 구역 | 8월31일(토)5시반 | Rossmoor Hillside Clubhouse |

◆ 본당 창립 29주년 기념 및 장학 기금 모금 골프대회

일시 : 10월 5일(토) 오후 1시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Oakland)

참가비 : 남성 \$100, 여성 \$80

- 그린피, 카트비, 기념품 및 저녁식사 포함

문의 : 육승주 아오스딩 510-909-6626

◆ 평협 여성부에서 김치바자회 이익금 \$1,500을 소방설비/지붕공사기금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새로 오신 가정

10 구역 : 김용재 스테파노/헬레나 가정

**주일학교 미사 : 11시 친교실**

**주일학교 개학 : 9월 8일**

**주일학교 등록 : 친교실**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3-2014)**

- 개강 : 2013년 9월 7일

- SAT II 한국어 시험반(개강 후 10/26까지)

- 특별활동수업 : 소고춤(무용전공 선생님 지도)

- 수업료 : \$300

-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415-517-3544